



장금순 상무  
바이엘코리아(주)  
jangwi@dreamwiz.com

## 육계 산업,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노력한 끝에 이제 AI 문제가 정리되거나 하는 순간에 다시 발생보고가 있어 양계관련인들 모두에게 시름을 더하고 있다. 2007년 한해를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할지를 정해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기에 AI 발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루 하루에 쫓겨가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올 한해를 전망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병아리 과다 공급으로 육계 생산이 수요보다 많을 것이다. 국제사료곡물가 인상으로 생산 원가가 오를 것이다. 수입 다변화로 수입육이 쉽게 들어 올 것이다.

AI가 발생하면 소비가 50% 정도 급락하며 발병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의 발병기사가 보도만 되어도 10일 이상 소비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는다. 즉, 생산원가는 오를 것이고 생산성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데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으면 계육의 과잉 생산으로 육계 시세가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만일 이상 기후나 질병으로 인해 사육생산성이 떨어지면 시세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라도 AI는 소비를 급격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라야 한다(?) 등.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일까?

우선 2005년에 종계가 과잉 입식되었는데도 2006년 결과는 육계시세가 좋았다. 그래서 과잉 입식한 농장이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종계장은 입식을 더욱 늘렸다는 것이다. 핵심은 소비 증가가 아니라 극심한 생산성 부진 때문이었던



우리 관련 산업들과 그 안의 각 개인이나 조직들은 경쟁하며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상대를 그야말로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기에 상생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데. 그러니 2007년에도 기후나 질병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극도로 나빠야 한다는 전제로 출발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육계산업 관련인 모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원종계업부터 종계, 실용계 생산자, 사료공급자, 기구·시설업자, 수의업계, 도계업, 계육수출입업자, 소비자단체, 관련국가기관, 공공단체, 협회, 학계 등 관련인 모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전망, 수급전망, 생산수급계획, 생산성 개선 대책, 방역대책, 나아가 소비 촉진 등은 모두 공동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업이 행운에 의해서 명목을 이어 나갈 수는 없다. 설사 생산수급 계획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부족을 초래하여 수입육으로 보충된다 하더라도 배아파하거나 그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때 발생된 문제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야 할 것이다. 산업이나 사업은 하룻밤의 도박 게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할 생명체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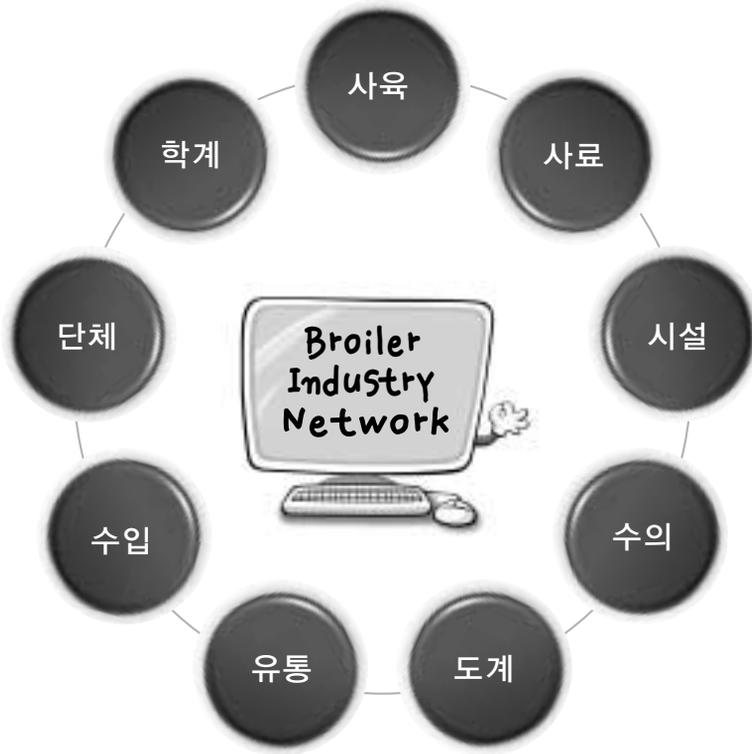
때문이다.

경쟁과 전쟁은 다르다. 경쟁은 서로 견제하고 협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함께 발전한다. 전쟁의 목적은 상대방을 죽이고 나 홀로 살아 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관련 산업들과 그 안의 각 개인이나 조직들은 경쟁하며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상대를 그야말로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기에 상생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망 발달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형성 또한 용이할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최근 지지부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자조금제도 정착이 아닐까? 또한 사료와 동물약품에 관련된 법령이 서로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현재 사육되고 있는 품종의 특성 및 생산성 지표 등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당장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 제도나 규정을 왜곡하거나 무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제 경쟁 시대임을 알고 크게, 멀리 보아야 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AI 바이러스가 철새 청둥오리의 분변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책임 추궁으로 곤란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터이니 다행이다 싶지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책없이 갑갑하다. 오히려 누군가 사람이 잘못했다면 해결책이 쉽게 나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에 맡기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많은 가축을 매몰하고 막대한 양의 소독약을 뿌려대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또한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단지 농민을 돕기 위해 닭고기를, 그것도 국산 닭고기만을 먹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겠는가? 소비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떠날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오해하면) 그대로 떠날 것이다. 그것도 하루 아침에.

최근 통계 전문가에 의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다고 하며 6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준

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더니, 그 뒤 미래학자는 120~130세까지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 한다. 게다가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이나 내일 계속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기에 변화에 대한 감지를 빨리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오직 예상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말이다.

이런 변화 속에 적응하고 살아 남기 위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며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